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 국내 자살자 수 감소, 10·20대는 증가

주일학교, 생명존중 가치관 정립의 최적의 교육환경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국내의 자살자 수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20대만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살 사망자는 2011년 1만 5906명에서 2016년 1만3092명으로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따지면 2011년 역대 최고치인 31.2명에서 5년 만에 25.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기준으로 10대와 20대는 각각 4.9명(0.7↑), 16.38명(0.7↑)으로 소폭 증가했다.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연령층의 감소 추세와 대조적이라는 점, 해당 연령층이 청소년·청년 세대라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나는데,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으로 78.1명에 이른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인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학교 성적’(40.7%) ‘가족 간 갈등’(22.1%) 등을 꼽은 데 주목하면서 “학부모들이 세속적 교육관을 벗어나 자녀의 꿈과 비전,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한 선행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범종교적 자살 예방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신은정 부센터장은 “청소년 세대는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고 종교기관은 연령별로 촘촘하게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교회 주일학교는 어려서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이라고 설명했다. [GNPNEWS]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시편 22:24)

**기도** |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울고 웃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곤고한 인생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주께서 이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일에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공: WMM

- 베트남 호몽족들의 시장

## 형형색색의

각종 옷과 장신구들이 가득한 시장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베트남 고산 지대를 터전으로 삼은 호몽족은 여전히 전통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산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난 호몽족 여성들은 직접 재배한 아마포 천에 여러 가지 자수를 놓아 옷과 장신구들을 만들어 입는다.

모처럼 열린 시장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 여자아이는 벌써 한바탕 시장을 휘젓고 다녔는지 발바닥이 까맣다.

호몽족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진 각양각색의 물건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르게, 아름답게 지으셨다. 같은 형질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각각 다른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만 드러난다. 이 하나님을, 우리 힘써 알자. [GNPNEWS]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다음 호는 6월 17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9)

##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한 노인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노인이 물고기를 잡아 큰 것은 호수로 놓아 주고 작은 것들만 잡아 그릇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궁경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상히 여겨 물었고, 노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20cm밖에 안 되거든요.” 이 노인의 기준은 20cm입니

다. 그것보다 크면 생선을 담을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어떤 요리법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당신이 가진 20cm의 프라이팬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당연히 당신의 20cm 프라이팬 안에 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혹시 25cm, 30cm로 프라이팬 크기를 바꾸면 그분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내 기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당신’이라는 자아와 생각의 틀인 당신의 프라이팬을 깨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 힘으로 프라이팬을 부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 같아서 깨부숴버리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예수님께 당신의 프라이팬을 가져와 내밀며 스스로 깰 수도



일러스트= 김경선

없거나 솔직히 깨고 싶지도 않았다고 정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팬을 예수님이 부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십시오. 그분이 세상을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GNPNEWS]

###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 INSIDE

뉴스 | 아시아

6세 어린이 ‘성 인권’ 교육 “합당한가?” 2면

기획 |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담은 풍선을 왜 북한에 띄우나? 3면

인터뷰 | 헤브론원형학교 12학년

“원망과 불평의 삶이 이제는 축복이 됐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 한국

## 6세 어린이 ‘성 인권’ 교육 “합당한가?”

## 서산시, 6월부터 성평등 무료교육 추진

서산시가 6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성 인권, 성적자기 결정권 등 ‘성평등’에 관한 무료 교육을 추진한다.

서산시의 A어린이집은 최근 서산시 여성가족과로부터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신청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 따르면, 6세 아동 10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부된 강의계획은 ‘충남성평등교육’이란 이름으로 5가지 주제의 성평등 강의계획을 수록하고 있다.

A어린이집 B원장은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당혹스럽고 이런 교육이 강행될 경우, 아이들이 성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평등은 사람의 성을 남녀 외에도 다양한 수십여 가지의 성적정

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성주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젠더 개념을 전제로 동성애, 성전환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개념이다. 울초 남녀를 기준으로 하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헌법개정 시도가 최근 국민들의 반발을 받고,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헌법개정이 무산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젓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미취학 어린이들에게까지 시행하려고 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산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서산시는 ‘성평등한 노동’, ‘여성혐오’, ‘섹슈얼리티와 성 인권’, ‘젠더박스’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강의라고 하기에는 성을 정치적 개념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충남성평등교육(심화과정-성·사랑·사회) 강의계획 |                                                                                                                                           |           |
|----------------------------|-------------------------------------------------------------------------------------------------------------------------------------------|-----------|
| 주제                         | 아름다운 성·사랑·사회                                                                                                                              |           |
| /인원                        | 충청남도 일반인/ 30여명                                                                                                                            |           |
| 목표                         | 나의 섹슈얼리티를 생각해 보고 성인권의 개념을 이해                                                                                                              |           |
| 실행                         | 진행순서                                                                                                                                      | 매제        |
| 중<br>요<br>내<br>容           | ○ 인사나누기<br>- 강사 소개 및 라포 형성<br>- 교육 참여자 확인<br>: 참여 동기, 교육에서 바라는 점 등 질문<br>○ 아이스 브레이킹<br>: 그림카드, 숫자게임 등 다양한 도구 활용<br>○ 교육목표 및 주요 내용 안내      |           |
|                            | ○ 인권의 이해<br>- 성인권의 이해<br>- 성인권의 탄생 배경과 중요성<br>- 인권과 젠더<br>○ 성당론의 역사<br>- 국가의 성관리 역사, 출산관리 역사 등<br>○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이해<br>○ 성인권의 눈으로 본 성적자기결정권 | ‘PP’<br>영 |

▶ 충남성평등교육을 위한 공문 내용

이번 어린이 대상 성평등교육이 강행될 경우, 어린이들이 성을 통한 생명의 신비와 존엄이란 개념도 배우기 전에 성적 지향, 성 인권, 성혐오 등을 배우게 됨에 따라 성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GNPNEWS]

## 아시아

## 남인도 총선, 2.3등 비힌두 정당 연합… 교회 환영

최근 힌두민족주의 정책과 선교사 추방 등으로 선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에서 힌두교 기반의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남부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의석수를 보유한 카르나타카 주의회선거에서 전체 222석 가운데 104석을 차지해 제1당을 차지했다.

최근 통신원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기 연방 총리를 결정지를 총선을 1년 앞두고 총선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던 이번 선거에서 인도국민당이 차지했다. 그러나 제1당이 의석 과반에는 모자라 나머지 정당이 연합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실제로 연방의회 제1야당이자 현 카르나타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

으며 이번에 78석으로 2위를 차지한 인도국민회의(INC)는 38석을 확보한 지역정당 자나타달-세쿨러(JDS)와 연정을 선언, 무소속 의원과 합쳐 117석으로 주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BJP당은 힌두교를 민족이념으로 인도 통합을 꿈꾼다. 하지만 JDS와 INC는 힌두이즘을 추종하지 않고 교회에 호의적인 상황이라 인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들의 연합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 통신원은 “인도 교회와 선교를 생각할 때, BJP당에 의한 힌두민족주의가 정치적 힘을 얻으면 제도적 탄압과 힌두과격단체(RSS)에 의한 폭력이 구체화되는 일이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 YEDDYURAPPA'S OPTIONS                                                                                                                                                                                           |                                               |                            |           |
|-----------------------------------------------------------------------------------------------------------------------------------------------------------------------------------------------------------------|-----------------------------------------------|----------------------------|-----------|
| HALFWAY MARK<br>112                                                                                                                                                                                             | BJP<br>104+<br>1 independent.<br>Needs 7 more | CONG JD(S) ALLY<br>78+38+1 | TOTAL 117 |
| <p>1 If 13 rival MLAs don't vote, House strength will be 209, majority mark 105. All 13 will be disqualified</p> <p>2 2/3rds from Congress (52) or JD-S (24) can merge with BJP. They won't be disqualified</p> |                                               |                            |           |

▶ 각 정당의 의석수 상황(출처: theworld news.net 캡처)

방향으로 정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BJP 역시 무소속과 INC, JDS 소속 의의원 당선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과반 의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르나타카 주정부를 누가 차지하는지는 정당, 의원 간 합종연횡(合從連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NPNEWS]

## 한국

##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성회’ 열린다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도시… 5월 21일~ 6월 10일까지

순회선교단은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원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성회를 갖는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열리는 것으로, 김용의

선교사가 주강사로 참여한다.

5월 중에는 수원(5/21-수원삼일교회), 부산(5/26,27-변영로교회), 광주(5/29,30-은광교회)에서 진행된다. 또 6월에는 대구(6/1,2-호산나교회), 대전(6/3,4-서부교회), 경기도(6/5,6-열방교회), 서울(5/31-태능침례교회, 6/8-대조동순복음교회), 원주(6/9-원주중앙교회), 전주(6/10-전주은누리



교회)에서 열린다.

집회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 30분(일부지역은 다름)에 시작되며,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집회일정은 순회선교단(www.wmm119.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010-8369-4641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13~5.1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페이스북, 올 1~3월 유해 게시물 8억 6000만여 건 삭제

페이스북은 15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 간 약 13억 개에 달하는 허위 계정들과 최근 3달 동안의 8억 6000만 건이 넘는 유해 내용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했다.

주님. 인터넷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해 내용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들의 부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인터넷 공간에서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미디어의 증인들을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 인도네시아 잇단 테러에 8살 아이까지 동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폭탄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13일 수라바야 시내 성당과 교회 3곳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해 사망자 13명, 부상자 60명이 발생했다. 14일에는 테러를 막는 지역 경찰본부가 자살테러로 공격받았으며 부녀자와 8~9세 어린이가 동원됐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성전’이라는 명목 하에 어린이들까지 동원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지 못해 두려워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 또 인도 뿔친 모래 폭풍… 집 무너지고 나무 쓰러져 43명 사망

13일 인도에 또다시 최고 시속 109k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인도 곳곳을 강타하면서 밤사이 최소한 43명이 숨졌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대단한 문명과 과학으로도 자연재해 하나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운명론과 윤회론에 사로잡혀 있는 인도 사람들의 사상이 십자가로 깨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5월 28일 ~ 6월 16일

## 5월 28일~6월 2일

5.28~6.2(매일 0시~24시) ▶ 광주 남구 / 봉선중앙교회 (김\*\*) 010-9907-2971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손\*\*) 010-3913-2677  
5.28~30(05시~20시) ▶ 라오스 비엔티안 / 라오스기쁜교회 (김\*\*) 856-20-5424-5705  
5.28~6.2(08시~20시) ▶ 서울 시흥 / 예방교회 (박\*\*) 010-4004-4326  
5.29(0시~24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임\*\*) 010-2276-8221  
5.29(11시~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 010-5417-9933  
5.28~29, 5.31~6.1(매일 10~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5.28~29, 5.31~6.2(매일 10시30분~11시30분)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 010-5528-5087  
5.29~6.1(매일 10시~12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5.31(10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 010-8482-8651  
6.1(10시~14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6.1(10시)~2(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6.2(06시~12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김\*\*) 010-7770-9191

## 6월 4일~6월 9일

6.4~6.9(매일 0시~24시)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이\*\*) 010-3737-3629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6.4(0시~24시) ▶ 울산 / 울산태화교회 (박\*\*) 010-9326-7767  
6.4~9(매일 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동산교회 (김\*\*) 010-2820-7312  
6.4~5, 7~8(매일 10~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6.4~5, 7~9(매일 10시30분~11시30분)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 010-5528-5087  
6.5(11시~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 010-5417-9933  
6.5~8(매일 10시~12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6.6(0시~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 010-8268-6879  
6.7(10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 010-8482-8651  
6.8(10시~14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6.8(10시)~9(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6월 11일~6월 16일

6.11~6.16(매일 0시~24시) ▶ 인천 남동 / 참빛사랑의교회 (안\*\*) 010-7797-1889 ▶ 경기 광주 / 문광교회 (최\*\*) 010-3380-5781  
6.11~14(14시~20시) ▶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6.16(0~24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 (김\*\*) 010-4567-8775  
6.11~12, 14~15(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6.12(11시~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 010-5417-9933

\* 6월 11일 주간에 기재 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도4.365본부(www.prayer24365.org)를 참조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믿음의 눈으로

# 성경을 담은 풍선을 왜 북한에 띄우나?



에릭 폴리 목사

본지는 열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기고하는 컬럼을 신선했다. 이번 호는 에릭 폴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날려 보내는 풍선의 양으로 따지면, 한국순교자의소리는 풍선 사역에서 ‘거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북 풍선을 날리는 다른 단체들과 우리 단체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인권에 관련된 대북 전단이 아닌, 오직 성경만 날려 보낸다. 이 성경은 바로 북한 정부가 출판한 번역본으로,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 헌법에 의해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풍선을 날릴 때마다 항상 경찰에는 알리지만 대중 매체들에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 항상 밤에

풍선을 날리고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작업을 한다. 고가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풍선과 성경책이 안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한다. 고도의 컴퓨터 모델링과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추적장치, 또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풍선을 사용한다. 또 이 풍선은 크기가 작아 레이다망에 잡히지 않으며, 착륙하지 않고 흔적 없이 공중에서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헬륨가스만 사용하고, 훨씬 더 저렴하며 논란이 많은 수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 풍선들은 효과가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2015년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보았다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2000년 당시 0%에서 2014년에는 7.6%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 해도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단지 북한 주민들을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평화를 위태롭게 해야만 하는가?’

## 성경책 본 북한 주민 15년 만에 7.6% 증가

평화는 매우 중요하고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홀로 이루어 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뒤

에 DMZ(비무장지대) 남쪽에 사는 모든 이들이 줄줄이 따라가고, 김정은 뒤에 DMZ 북쪽에 사는 모든 이들이 줄줄이 따라와서 누구도 그 행렬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계획된, 제도화된 평화이다. 정부가 공급한 깃발들이 휘날리고, 소셜 미디어에 적합한 사진들을 찍고, 남북 정부가 편한 그들만의 속도대로 그들의 편의에 맞춰 서로의 관계를 쌓기 위해 스포츠나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오르던 장면을 기억한다.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진정한 평화는 보통 선언문을 통해서가 아닌, 다수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평화협상 절차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만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 말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서독의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말로 평화를 이루자는 순진한 제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이 글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물러나 있거나 그저 정부의 노력만 따르

기보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역할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우리 순교자의소리가 풍선에 성경을 실어 날려 보내는 것은 평화협상 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다른 평가 기준을 발전시키려는 북한 지하교인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정부에 충성스럽고 유용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 즉 정부로부터 승인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 이상 조심스럽게 이 메시지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왔다. 우리가 날려 보낸 풍선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평화로 가는 발걸음을 휘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평범한 북한 주민들에게 다다른 이 성경책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삶의 의미와 용서,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 성경은 북한 주민에게 삶의 의미, 용서, 평화를 제공

기독교인들은 아마 남북 정부가 꿈꾸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상상할 것이다. 그렇기에 동시다발

적으로 일어나는 평화적인 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평화협상 절차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계속 유지해온 장벽을 극복하고 평범한 남북한 사람끼리 서로 직접 대화하게 하려고 풍선을 날린다.

평범한 사람들이 DMZ를 만들지 않았다.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이들이 정부를 지나치게 믿고, 정부에게 지나치게 맡겼기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음을 DMZ는 보여준다.

이렇게 정치 이슈화가 되거나 잘 연출된 행사나 교류활동을 통해 남북한이 만나야 하는 형태의 평화협상 과정은 최악의 경우에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또 기껏해야 한 민족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남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복될 수도 있다.

남북한 정부는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동시에 우리는 평화를 이뤄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수단들을 정부가 독점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GNPNEWS]

## 월드 뷰 World view

# 하와이 화산 생존자들을 통해 배우는 용기

지난 5월 초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90m 이상의 용암을 분출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높이다. 화산 폭발이 진행될수록 용암분출은 최대 3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용암이 얼마나 멀리 퍼질지, 또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다. 지난 5월 3일 용암분출이 시작된 후 최소 26채의 집이 파괴됐으며 거주민 1800여 명이 대피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사람들은 의연하다.

9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한 여성은 “화산과 용암은 항상 내 삶의 일부였다.”면서 “그것은 엄청나게 파괴적이다... 하지만 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우리는 괜찮다. 집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의 딸은 “이 섬은 장난이 아니다. 홍수나 쓰나미로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는 용암까지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섬을 사랑한다. 세상을 위해서 이 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근처에서 살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며 고개를 젓든지, 아니면 그들의 용감무쌍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 용기를 외치다

하와이 섬은 하와이 주를 구성하는 섬들 중 하나로 종종 ‘빅 아일랜드’로 불린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소 중 한 곳이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산은 마우나 케아이다. 해저에 있는 이 산의 바닥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측정하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 하와이 섬은 거대한 폭포, 열대우림, 그리고 식물원의 근원지이다.

나는 최근 하와이 주에 수년간 살았던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휴가를 간다면 하와이의 많은 섬들 중 어느 섬으로 가겠냐고 물어봤다. 그는 즉시 빅 아일랜드를 꼽았다. 그곳에



집을 사는 것은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얻는 보상이 그 비용을 뛰어 넘는다고 생각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당신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국 당신이 옳았다고 믿기까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행동방침을 설정하고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면 군인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는 승리한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까지는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처럼 되는 것은 그 어떠한 인간의 야망을 넘어서는 열망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해지거나, 유명인이 되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 영원을 시간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생명의 표식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보상받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고귀한 목적은 대가를 치른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이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들은 응답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

옵소서”(마 26:39)

##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가? 나도 같은 생각이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구원사역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없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목적은 매우 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는 그분의 힘이 필요하다.

프레데릭 부크너는 말한다. “복음이 좋으면서도 새로운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스럽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일하고 계신다.”

당신은 오늘 주님께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는가? [GNPNEWS]

〈출처: 크리스천헤드라인〉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22) - 제주도 편(4) 이기풍 선교사

## “200여 명이 이기풍을 죽이기로 서약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 거칠고 냉랭한 배척으로 시작된 사역

믿음으로 시작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지만 제주선교는 그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이기풍은 제주로 가던 중 파선을 당해 표류하게 되었고, 출발한 지 44일 만에 어렵게 제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칠고 냉랭한 배척뿐이었다. 그가 제주로 파송되어 내려오기 4년 전에 있었던 ‘이재수의 난’으로 인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예수의 이름을 듣기조차 거부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게다가 평양 출신 이기풍은 제주 방언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모두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전도하기 위해 말을 걸



▶ 성경 가두 판매로 전도하는 이기풍 선교사(출처: 한국 기독교회사photohs.co.kr 캡처)

어도 응대하지 않았다. 이기풍에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점점 더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 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도모하고 서약하기까지 했다.

제주 성안에서 계속되는 배척을 받은 이기풍은 선교사역을 위해 먼저 제주의 실정을 파악하기로 하고 성읍에서 빠져나와 한라산을 돌며 주민들과 부딪혀 보기로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와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산지 중심의 전도여행에 한계를 느끼고 바닷가로 나갔다가 탈진상태로 모래사장장에서 쓰

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한 해녀의 집에 옮겨져 있었다. 감사하게도 후에 그 해녀가 이기풍 선교사의 사역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기풍이 제주에 온 다음 해인 1909년 5월 어느 날, 개울에 큰 홍수가 났다. 한 여인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무서워서 건져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기풍이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어 그 여인을 살려냈다.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까지 여인을 살려낸 이기풍을 본 사람들은 “야소교 목사가 나쁜 놈이 아니구나!”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기풍 선교사의 전도 일화들은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와 같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제주 성내에서 귀신에 켜 광인을 몇 일간 집에 함께 머물게 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니 정신이 온전해졌고, 다리를 다친 사람이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후 환자나 귀신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나음을 입고 천국 시민이 되어 자유를 누리곤 했다.

###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였다. 워낙 우상숭배와 사며니즘에 매여 있었기에 그들의 굳어진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이 땅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꼭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일이 많아진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 때문이 아니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 사례 권사의 간증으로 미뤄보아 진정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은 이기풍 선교사와 윤함애 사모의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 때문이었다.

이기풍 선교사는 선교지인 제주를 자신의 고향처럼 사랑하며 섬겼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도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은 있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겪게 되는 배척과 핍박에 힘에 겹던 이기풍 선교사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펏 사무엘 선교사에게 편지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이것이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당신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턱의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분투하고 노력하시요.’ 이기풍은 낙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이전보다 더 전심으로 제주의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다. [GNPNEWS]

김성옥 선교사

참고문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선교 통신

## 1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3월 고난주간 기간에 있었던 대학생들 전도여행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V지역은 강성 이슬람 지역이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M지역으로 사역을 옮기고 나서 무슬림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무슬림 지역으로 보내고자 대학생 훈련사역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처음 일 년은 매주 국립대학교에 가서 예배와 중보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는 M지역 스태프들과 본격적으로 전도 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로 헌신하였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는 스태프들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전도는 커녕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매주 사람들을 만나 두려움을 떨치는 훈련을 먼저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 팀이 먼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여행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훈련하면서 고난주간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22명이 참석하였는데, 2명씩 짝을 이루어 M지역 주변의 10개 지역으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3박 4일간 사용할 차비와 밥값만 주고 보냈습니다. 만날 사람들과 잠자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학생들을 보내놓고 저희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각 지역에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전도여행 중에 경험한 주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고민하는데 좀더 가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집에서 자게 된 이야기. 방문한 지역에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훈련을 한 이야기. 계속 거절당했지만 복음 전도의 열정을 더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이야기. 가기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등했는데 전도여행 기간에 치유를 경험한 이야기.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갔는데 돌이 심하게 싸우고 중간에 돌아올 뻔했지만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합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 등등. 각 사람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계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약 230명이었고 그중에 약 12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1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중에 20명 정도가 영접하거나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너무 흥분되고, 감사하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본지 자료 사진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것과 또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능력으로 일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저희는 고난 주간에도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진

리에 갈급한 영을 부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라마단 기간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GNPNEWS]

I 국= L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원망과 불평의 삶이 이제는 축복이 됐어요”

**MK 출신의 다음세대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12학년**

10대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한국 선교 초기에 입국한 상당수 선교사들 가운데 10대에 헌신을 결단하고 선교지로 오게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이야기가 국내 다음세대에는 없을까?

10대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육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2013년에 시작된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는 충남 서산의 한 폐교에서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2년간 선교현장에서 예비선교사로서 삶을 경험하게 된다. 내년 초 4기 졸업생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이 학교 12학년 학생 15명 가운데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 MK) 출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 해외에서 살다가 어떻게 부모님 없이 홀로 한국에 들어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신현균(이하 현균): “저는 선교사 이신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 친구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에서 겨우 숨만 쉬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복음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의 성경입체낭독 ‘로마에 온 편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 한국에 와서 청소년 대상의 복음훈련도 받으며 준비하다가 면접을 보고 학교에 오게 됐어요. 당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군요. 그런데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하던 중, 하나님이 저도 요셉처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박경륜(이하 경륜): “저는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SAT(수학능력평가시험)를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이곳에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간낭비 아닌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순종하던 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너를 불렀다’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학교에 오게 됐어요”

신진철(이하 진철): “저는 선교사 자녀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저 교회만 다녔죠. 어느 날 아빠가 헤브론원형학교에 가지 않겠냐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을 통해 이 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삶을 듣고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아빠의 안식년에 한국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음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기로 했죠.”



▶ 앞 줄 왼쪽부터 박은준, 신진철, 오예인, 안다영, 뒷 줄 왼쪽부터 박경륜, 신현균, 신민철

###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입학

이들은 비록 나이는 어려도 나름대로 선교사 자녀로서 또래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다. 더욱이 어린 시절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서 살며 이런저런 아픔과 갈등을 겪어온 이들의 삶이 불꽃같이 터져나왔다.

- 선교지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이 학교에 온 후, 어떤 은혜가 가장 컸나요?

박은준(이하 은준): “다음세대는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가진 때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배워도 저는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 헤브론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어지는 기회, 즉 옛사람의 흔적으로 넘어진다고 해도 계속 복음이 실제 될 수 있도록 치열한 싸움을 싸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안다영(이하 다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은혜였어요. 헤브론은 어떤 대가도 없이 교육선교사로 헌신한 선생님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모여 살아요. 여러 문제와 사건이 터지기도 하지만, 매일 함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복음이 결론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 이 학교에서만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예인(이하 예인): “철저한 자기부인을 통해 사랑을 배워요. 저는 선교지의 공동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부딪혀 보니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나쁜 감정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싸워도 그저 말로만 사과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시간 함께 사는 헤브론 공동체는 그럴 수 없더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지체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돕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임을 알아가고 있어요.”

진철: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전에 제게 순종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제가 기준이 되어서 더 옳은 것, 유익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학교에 온 순간부터 가이드와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앞에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 모두 행복한 삶을 잘 누리고 있는 것 같네요.

신민철(이하 민철): “여기서는 1등을 하기 위한 경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고 보이지 않는 자리가 결코 뒤떨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쩌면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일 수 있죠.”

진철: “이전에는 제가 행복하려고 늘 무언가를 쫓았다면, 지금은 행복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니까요. 그런데 헤브론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예요. 복음을 만나야만 가능하죠. 복음이 실제 되지 않으면 헤브론 공동체의 삶은 쉽지 않아요.”

은준: “네, 모든 것을 가지려 애쓰지도,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셔서 이 삶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죠.”

- 그러면 헤브론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균: “일반 교과목을 복음 속에서 배워요. 저희는 ‘믿음으로 공부

한다’고 표현하죠. 공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죠.”

민철: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1+1=성령님이다’식의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예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공식에 대입만 해도 답이 나오는 수학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주님께 답을 구해요. 답을 찾지 못해도 주님을 의지했다면, 바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은준: “저는 숙제할 때 더 그런 경험을 해요. 시간이 촉박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주님이 찾아오시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치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무엇을 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주말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도록 한 이 학교는 해외에서 온 MK들에게는 임시 부모님인 ‘미션 맘(Mission Mom)’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 이 학교에 이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중보기도자들이 이 학교 재학생을 받아주는 주말 부모인 미션 맘으로 섬기고 있다.

### MK들을 위한 미션 맘, 주말 부모 역할

- MK들은 대부분 미션 맘의 섬김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션 맘



▶ ‘연합과 섬김’ 수업시간 중 청소하는 모습

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다영: “사람들과 교제하는 법을 잘 몰랐던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그저 혼자서 말썽으로 단순히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 방법이 진리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고 미션 맘이 권면해주셨어요. 먼저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함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의 바르고, 갖추어야만 했던 제 모습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철: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돼주셨어요. 저희 엄마라면 단호하게 하지 못했을 일들을 미션 맘은 하셨어요. 지나치게 결단을 요구할 때,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의 본심이 제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최근 제가 실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어 찾아온 미션 맘에게 버릇없이 굴었어요. 그때 미션 맘이 스스로 ‘실패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 실패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예인: “저는 세 자녀가 이미 헤브론에 다니고 있는 미션 맘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게도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재정, 시간, 모든 필요를 함께 나눠주시고 계세요. 저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족처럼 대할 수 없고, 마음을 열 수 없어 긴장과 눈치를 자주 봤어요. 그런데 진리로 교제를 하면서 저를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음을 알게 되면서 정말 좋아졌어요.”

-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사역도 꿈꿔 본 적 있나요?

예인: “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빠 엄마가 선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Y국에서 전쟁도 겪고, 2년간 추방도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처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영혼들을 위한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은준: “제가 살던 M국 국민은 90%가 무슬림이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은 겉으로 누구에게든지 친절해도 속내를 비치지 않아요. 진짜 친구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인 선교사님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MK들은 쉽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3)

# “한 번 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허망한 논설과 같지 않다. 천하의 어떤 선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충격적이다. ‘말씀으로’ 보이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와 삶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망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처럼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에서 부름 받은 선지자 에스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임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겔 37:3)

##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화려한 성전과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죽은 지 오래된 마른 송장처럼, 썩고 비틀어진 영혼으로 살다 망한 이스라엘. 생명력이라곤 전혀 없었던,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대언하자 놀랍게도 바삭 말라있던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이어 생기가 들어가자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육지거리나 세상의 저주는 알아들으면서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안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요 5:24)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린다.

우둔한 자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딤후 3:7). 땅 아래에서 금이나 은은 켤 수는 있어도 참된 지혜는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욥 28:13).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일러스트=노주나

를 지혜롭게 한다. 진리에 붙들린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예배당은 가졌지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중세(中世)시대, 너무도 확실했고, 명료했고, 강력했던 말씀에 매료되었던 한 사람 츠빙글리(Zwingli)를 통해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의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다.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수술하고, 회복하신다(히 4:12-13).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이 혼탁하면 제대로 볼 수 없다. 복잡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설 수 없다. 자아의 탐욕에 얼룩진 혼탁해진 마음은, 변명하며 꾸미려 해도 빛 되신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여호와와의 계명은 자아의 탐욕을 벗겨내고, 사리(事理)를 분별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영원까지 이른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 또 여호와와의 법은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롭다.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혼돈하고 정신없는 세상 한 복판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2016년 12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2018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모집

헤브론원형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1. 모집 대상

2018학년 현재 4학년, 6학년, 8학년, 10학년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학을 희망하는 사람

### 2. 원서 교부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원서 접수 기간: 2018년 7월 9일(월)부터 ~ 2018년 7월 30일(월) 소인까지  
해의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아래 문의처 확인)

### 3. 입학설명회

2018년 7월 9일(월)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18년 6월 11일(월)부터 ~ 2017년 6월 30일(토)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할 것  
\*원서는 입학설명회에서 교부합니다.

### 4. 입학전형 일정

1차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2018년 8월 4일)  
2차 면접 및 필기고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018년 8월 18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8년 9월 4일(화) 입학식

### 5. 문의 및 접수처

010-8344-1718, 010-5346-4642(입학사무처)  
hebronschool@hanmail.net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 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구 시온수양관)

## 2018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초 6학년~고 3학년 연령의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7.2(월)~5(목)까지 3박 4일간 개최한다. 묵상과 복음 강의, 복음 스킷, 기도회, 소그룹 모임 등의 형태로 헤브론원형학교(충남 서산)에서 진행될 이 캠프 참여 희망자는 5.21(월)~6.8(금)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는 홈페이지(www.theschoolhebron.org)를 통해 다운로드 하여 우편접수 하면 된다. 회비 10만원. 문의 ☎ 010-8459-1718



## Interview

<5면에 이어>

##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게 친구가 되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요.”  
- 많은 MK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꺼린다는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진철: “저도 예전에는 MK의 신분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고, 한국에서가 아닌 타국에 있어야 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 제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영: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인: “중동에서 실제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치료제는 말씀과 기도며, 우리의 삶은 축복이라

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경륜: “MK 중에서 선교사를 꿈으로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선교사가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해 봤어요. 부모님의 삶, 자신이 앞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의 상황들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말해주고 싶네요.”

은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꿈이 한 번도 ‘나’라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꿈꾸게 됐어요. MK가 힘든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을 와도 집 같지 않고, 선교지에 가도 집 같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본향이 오직 하늘나라인 줄 알고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S.Y.

<더 많은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 “복음의 능력으로 주방을 섬기다”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마치 절벽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가 나왔다. 그런 나를 바꾸셔서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게 하셨다. 주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아멘’하여 드린 자리가 바로 한 기독교학교의 주방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정신으로 순종한 것 같지 않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사랑의 줄이 쫘뼛 나를 매어 나의 옛생명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무엇을 드린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방, 모든 것이 낯설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자리였다. 두 분 권사님이 격월로 쌀 창고에서 내어주는 쌀로 밥을 지었다. 두 분의 성향이 다르기에 때에 따라 밥을 다르게 짓는 것을 처음에는 오해하

기도 했다. 한 분은 진밥을 인원수에 딱 맞게 짓는 것을 선호하시고, 다른 한 분은 윤기나는 쌀로 여유 있게 밥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 오랜 시간 각자의 경험으로 “밥이 잘 됐다, 안 됐다.”라는 말을 하실 때면 마치 내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믿음으로 했으면 결과는 주님 허락하심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느새 내 속에는 비판과 정죄함으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흉악한 자였으나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다.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개 취급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보다 더한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여야 할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 깨닫다

아주 심하게 밥이 곤죽이 되어 내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이전에

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권사님들의 말이 다음세대 선교사들과 선생님들께 맛있는 밥을 지어 섬기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는 말씀을 따라 주방을 성전 삼으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우리 주방에는 밥을 수리하는 ‘밥수리 전문가’가 있다. 밥 배식을 위해 밥 솥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완전히 설익어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된 날이 있었다. “큰일 났네.”라는 잔소리보다 밥이 부족해 난리가 날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그때, 권사님께 “밥 한 솥이 설익었어요. 어떻게 하죠?”라고 말씀을 드리니 “수리해야죠. 가지고 오세요.”라며 웃어 주시는데 정말 내 안



일러스트= 김호정

에서 기쁨이 넘쳤다. 나의 작은 실수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권사님들을 보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뿐 아니다. 언젠가 닭을 손질할 때, 닭에 붙은 기름 부위를 정말 만지기 싫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장로님,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라는 나의 대답에 “복음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렇다. 뜯어말려도 끝내 하고야 마는 인생을 살려주시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 정도면 됐지, 잘하고 있어.’ 언제든 내 안에 교만이 올라와 나태

해질 때면 하나님은 사건들을 허락하신다. 그때마다 나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교정해 주신다. “해 돋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 113:3)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송한다. 마라나타! [GNPNEWS]

차종석 선교사

###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北 열차 지연으로 아사자 발생... 당 간부, 꽃제비 갈취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 주요 신문방송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간의 대화나 핵폐기 등에 관한 보도의 부작용이나 대화가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 사회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사건사고 소식조차 국내 주요 언론매체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전문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의 소식은 여전히 충격적이며, 북한 사회의 열악한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개방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북한에서 최근 열차 운행이 늦어져 제대한 군인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굶어죽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데일리NK는 최근 강원도 안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제대군인 1명이 지연된 열차운행으로 기차에서 일주일동안 굶다가 싸늘한 시체로 고향집에 도착했다는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NK에 따르면, 북에서 군인들이 전역할 때 북한군 당국은 3끼 정도 도시락을 준비해 보낸다. 북한에서 열차로 최장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정상운행만 되면 약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열차에서 굶어죽은 제대 군인은 군에서 제공받은 도시락이 떨어졌지만 수줍음이 많아 남에게 부탁하지 못했고, 돈이 없으면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사회 분위기 탓에 결국 굶어죽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열차 지연(遲延)으로 제때에 치료약을 구하지 못한 양강도 해산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해산에 사는 한 주민이 급한 환자가 있어 약을 구입하느라 해산-



▶ 북한의 꽃제비들(출처: 모통이돌 선교회)

만포-평양급행 편으로 평안남도 평성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3일이 지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평안남도 개천에서 내려 평성까지 택시를 탔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주민은 약을 구입하자마자 다시 장거리 택시를 타고 해산에 왔지만 시기를 놓쳐 환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NK는 또 줄지 않고 있는 북한의 꽃제비(부랑아)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기관 간부들이 오히려 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함흥시와 주변 마을에 꽃제비가 늘었고, 이들이 조를 짜서 도적질을 하고

다니는데 별다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담당 보안원(경찰)들이 도적질한 것 중 얼마씩 떼서 바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불쌍한 꽃제비들에게 현금을 받아가는 보안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회문제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의 관심 부족으로 시장화에 뒤쳐진 하층민들의 삶은 더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의 공통된 전언이다. [GNPNEWS]



## 종교인인가?

지금 이 시대는 눈물의 기도와 믿음에 대한 노래를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다. 세상 프로그램에서도 종교 이야기를 약방의 감초처럼 쉽게 들을 수 있다. 지금 종교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은 황금을 두 눈에 붙인 늙은 탐욕의 신 맘몬(Mammon)이다. 탐욕의 신은 자기가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제단에 앉아 있는 이 종교 사제는 ‘거룩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내는데 능숙하다. 그가 “이제, 신나는 찬송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밴드 연주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진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마귀가 들어도 얼굴을 붉힐 만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성령님도 아니다. 신약도 아니요, 구약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를 이용할 뿐이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판>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

# 바싹 마른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

##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실존의 문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술에서는 대표 인간을 상징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남녀 조각상인 코우로스, 코레가 만들어졌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그려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권위가 표현되었다. 이렇게 경이로움과 신비, 또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위대함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시각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점차 바뀌어갔다.

로댕의 ‘생각하는 남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제처럼, 인간의 위대함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 인간상이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인류는 두 번

의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고, 자코메티의 작품은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난 대표 형상이었다.

##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활 생명 얻은 존재

1930년대 말부터 자코메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에 집중하였다.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죽음을 목격하게 된 자코메티는 이후부터 절망과 고통, 비극, 처절함 속에서 결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문제에 깊이 몰두하였다.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죽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죽음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사는 수 밖에는. 전쟁은 끝

났지만, 자코메티는 죽음을 짊어진 채, 주어진 하루를 걸어가는 인간의 실존을 바싹 마른 양상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대표 인간상이 되었다.

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흠 없고 완전하며, 천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신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였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작품설명: 알베르토 자코메티, 〈걷는 남자 I〉, 1960년, 10.5×23.9×97cm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악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은 은혜의 조치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대부분 처음 하는 것들이었다. 지금은 더욱 생소한 선교센터의 카페지기, 바리스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걸레를 빨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사전을 찢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과 너무나도 딱 맞닿아 있는 존재적 부르심이 믿어지고 실제 되게 하신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게다가 내가 커피와 음료를 제조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 복음에 소망을 가진 예수 생명들이요 열방으로 나아갈 귀한 다음세대 선교사들이다. 그렇기에 나는 단순히 커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열방을 섬기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리는 존재적 부르심

실제로 음료를 제조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재미를 붙여서 여유가 생겼다. 다른 사역 팀에서라면 설 수 있었을 식사시간을 가장 바쁜 시간으로 고스란히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내 모습과 섬김에 감

탄할 무렵, 주님이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셨다.

어느 날이다. 이틀간 복음 메시지를 듣는 일정 때문에 정식으로 카페를 열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호출번호만 남겨놓았다. 한바탕 모임을 치르고 난 뒤라 피곤하다는 핑계와 너무 많이 조느라 메시지를 듣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머릿속은 오로지 쉬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쉴거야. 쉴거야. 쉴거야.’

누워서 쉬려던 차에 전화가 걸려왔다. 오는 전화도 모른척하고 자려는데 지체가 속소로 찾아왔다. 카페에 손님이 와서 카페지기가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못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투덜대며 카페로 갔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억지 순종을 본 사람이 바로 카페지기인 나를 찾은 분이였다. 민망함과 염려가 밀려왔다. 며칠 뒤 그분이 카페에 오셨다. 그리고 차 주문을 하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섬겨주셔서.”

작은 해프닝이지만, 이 일은 주님께 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 사건



일러스트= 이수진

으로 내 마음에 새겨졌다. 잘하고 있는 줄로만 여기고 어느새 자기의 의가 되고 자량이 되고 있었던 나의 섬김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보게 되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는 결코 어느 때든지 나를 내어주면서 섬길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생명을 내주시며 섬겨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 주신 나에게 향상, 그리고 당연히 기대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 그저 불러주시고 끼워주신 은혜의 자리

요즘도 종종 바쁜 일상에 육체가 힘들면 소극적이고 의무감으로 섬기려는 때가 있다.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이 사건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끼워 주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변명할 여지없이 열린 주님 앞에 엎어져 인정하고 다시 믿음을 취하게 하신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저로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악한 자에게 사건을 허락하심은 언제 어느 상황이라도 핑계할 수 없이 예수생명으로만 살도록 하시는 은혜의 조치였다. 빠도 막도 못할 은혜의 자리, 그리고 살게 하시는 믿음의 주가 계시니 오늘도 주님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GNPNEWS] 박지영 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8. 5. 3 ~ 5. 17 (가나다 순)

## 개인

김사회 김선희 김유남 노은옥 박성규 서영숙 송지은 안병윤 윤경석 윤미자 이복순 이순이준진 이지영 이진봉 이진희 임종태 장선주 조상국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샘물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쉼 앙덕원감리교회 양목교회 양지순복음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만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